

##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번역 커리어 쌓는 것 중요

# 전문 번역가?

글\_강주헌(번역가)

“한국외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얼마 전에 출간된 《실패한 국가》에서 번역가인 나를 소개한 글이다. 요즘 번역 서적에서 번역가의 소개를 보면 거의 예외없이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앞 부분의 학력 소개만 다를 뿐,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라는 구절은 똑같다. 그때마다 궁금하다. 전문 번역가는 어떤 사람일까? 전문 번역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루를 번역과 시작해서 번역으로 끝내며 100권 이상을 번역한 나에 대한 소개도 전문 번역가이고, 하루의 일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1~2권을 번역한 사람의 소개도 전문 번역가다. 그의 활동을 눈여겨 본다. 몇 달이 지나도 새롭게 번역한 책이 출간되지 않는다. 당연히 의문이 든다. 전문 번역가라면서 뭐하고 지내는 걸까? 그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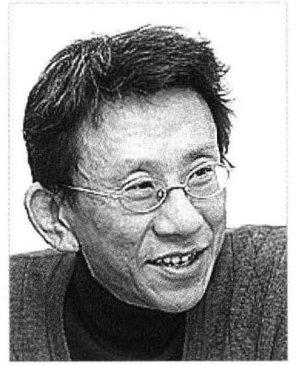
물론 번역은 그 자체가 전문적인 작업이다. 어딘가에 이미 썼듯이, 한 권을 번역하더라도 프로답게 번역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껏 한 권을 번역했던 두 권을 번역했던 간에 번역한 사람은 모두 전문 번역가다. 하지만 책날개나 그밖의 곳에 쓰여진 번역가 소개에서 전문 번역가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닐 것이다. 번역을 일종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 가깝다.

한겨레 문화센터의 번역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전문 번역가를 꿈꾼다. 현재 무직인 사람만이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번역이 자기의 길이라 생각하며 번역으로 전업을 소망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되게 발견되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전문 번역가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럼 전문 번역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시간을 알뜰하게 쪼개서 자신과 관련된 서적을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 번역가는 번역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직업정신을 가져야 한다. 정신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물리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나는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인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에서 내게 감동을 준 정치인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가 가택연금을 받고 있을 때 보여준 개인적인 생활태도가 그것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반듯이 입고 9시에 지하의 서재로 내려가서 저녁 6시 경까지 독서를 했다고 한다. 독서가 그의 직업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삶은 가택연금기간에 예외없이 반복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충분히 흐트러질 조건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 어쩌면 이런 삶이 원동력이 되어 대통령까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전문 번역가도 직업인이다. 그렇다면 직업인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자유로운 직업인이다. 일반 직업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출퇴근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번역가의 삶은 무질서하기 십상이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번역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



● 이 글을 쓴 강주현은

언어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한국외국어대과 건국대 등에서 강의.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게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

게 내가 강조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집에서 작업한다면 10미터도 안 되는 짧은 거리이지만 그 순간적인 시간을 출근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한다. 일반 직장인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듯 전문 번역가라면 그 시간만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다. 번역을 위해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한다. 물론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번역을 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8시간을 번역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8시간을 투자해서도 출판사와 약속한 시간에 번역을 끝내지 못할 듯하면, 일반 직장인이 초과 근무하듯이 더 많은 시간을 번역에 할애해야 한다. 전문 번역가는 1인 기업이다. 출판사와 약속한 시간은 일반 기업에 빚대어 말하면 납품 마감시간이다. 번역은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속품이다. 일반 기업에서 하나의 부품이 납품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생산과정이 중단된다. 번역과 책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문 번역가라면 책에서 번역이 갖는 위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할 만큼 번역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 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이른바 전문 번역가라면, 특히 자기계발서적을 번역해본 사람이라면 ‘샐러던트’ (Saladent)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영어로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Studen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부하는 직장인’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압축한 단어일 수 있다. 나는 지난달에 번역가와 ‘교양’에 대해 말했다. 번역가도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자기의 번역 수준을 높이고 번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공부는 필요하다. 그래야 번역가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 실력을 갖췄지만 연출 등을 이유로 번역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그들이 모두 잠재적 경쟁자들이다. 이런 경쟁이 활성화될 때 번역의 질도 나아진다.

번역은 직업인가? 3~4년 전만해도 번역은 21세기의 유명 직업으로 꼽혔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 직업은 번역가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번역가가 몇이나 될까? 주변 사람들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라는 사람을 일반 직장인처럼 대접해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번역은 아직 직업이 아니다. 번역을 직업으로 주변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책임은 번역가에게 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로 소개되는 번역가들이 그런 소개글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때 번역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글**